

## 2016년판 일본 통상백서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동차의 예를 들어 일본의 수출이 특정 상품과 특정 산지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에 경종을 울리는 2016년판 통상백서를 발표
- 백서는 일본은 현재 자동차산업에 대체할 수출의 견인차역이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, 생산의 국내회귀 움직임도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
- 게다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부품 등의 수출에서도 최근 중국에 역전되고 있다고 백서는 분석
- 일본은 가공무역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GDP에서 점하는 수출비율이 20%에도 미치지 않아, 40% 전후의 독일이나 한국에 크게 떨어지는 수준임
- 특히 일본은 관광이나 전문서비스, 운수, 통신 등 서비스 수출에서 뒤져있으며 GDP에서 점하는 비율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1/4밖에 되지 않음
- 나아가, 제조업의 수출에 대해서 백서는 생산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가운데 특정 분야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음을 문제시

### 1. 세계경제의 현황과 과제

#### □ 중국의 설비투자주도의 경제성장

- 중국 등의 투자확대는 선진국경제가 감속하는 가운데, 세계경제 위기 후 세계경제를 견인했으나, 설비투자 주도의 경제성장의 결과 과잉채무가 발생하고 과잉생산능력도 현저한 상황

#### □ 과잉생산능력과 세계적인 무역제한조치 증가

- 생산설비용량과 생산실적의 괴리는 철강, 화학, 액정 등의 분야에서 현저, 생산자물가·수출가격은 하락
- 세계경제의 감속과 맞물려 이들 부문에서는 국제적으로 감소경향에 있던 무역제한조치가 증가로 반전

## □ 자원가격의 하락과 자원국의 경제 감속

- 자원국경제는 신흥국의 자원수요확대에 따라 성장이 가속되었으나, 세계적인 경기 감속과 셰일혁명 등에 의한 공급증가로 자원가격이 급락, 경기가 감속

## □ 신흥국의 구조개혁 움직임

- 중국정부는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소비주도형경제로의 구조개혁과 제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외에, 사우디디아라비아 등의 자원국도 구조개혁을 시작

## □ 신흥국간 경제관계의 확대

- 생산면에서는 중국의 존재감이 상승. 각국의 최종수요에 대한 최대 부가가치수출국은 일본·미국·독일이었으나, 중국의 비중이 증가

## □ 세계적인 총수요와 잠재성장률의 저하

- 선진국에서는 세계경제 위기 후 총수요가 잠재공급량보다도 낮아, GDP갭이 마이너스 상태에 그치고 경제성장이 둔화
- 잠재성장률도 투자부족과 저출산·고령화 등으로 저하경향

## 2. 세계의 새로운 프런티어에 도전과 일본의 과제

### □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위해

- OECD 주요국들의 대다수가 수출의 확대를 통하여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비하여, 일본은 수출비율의 수준, 상승률 모두 낮음
  - 2015년 기준 일본은 15%인데 비하여 한국은 41%, 독일은 39%, 영국은 16%, 미국은 9%

### □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무역

- 상품무역의 확대가 세계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, 서비스무역은 확대기조
- 세계의 시장규모는 여행서비스가 1.2조 달러, 컨설팅 등의 업무서비스는 1.1조 달러

## □ 일본의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

- 일본의 서비스 수출은 각 분야 모두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
  - 전문업무서비스는 구미 선진국이나 독일 등의 수출비율이 높으나 일본은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음
- 일본의 서비스 수출은 많은 분야에서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
  - 일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더하여 근린 신흥국의 투자환경개선 등도 과제

## □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

- 정보·컴퓨터·정보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배경으로 전체 성장률도 높고, 선진국·신흥국 불문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음

## □ 디지털혁명을 위한 통상정책상의 과제

- IT기업의 자동운전·금융 분야 참여, 빅데이터 해석에 의한 제품관련 서비스 등, 산업구조의 변화조짐이 있는 한편,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등 새로운 통상정책상의 과제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

## □ 디지털혁명을 위한 IT인재 확보

-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에는 우수한 IT인재 확보가 필수적이거나,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해외 IT인재는 적음. 낮은 일의 만족도·급여수준이 그 배경

## □ 세계의 해외여행 트렌드와 방일관광

- 최근 방일여행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, 여행서비스 수취액의 대GDP비율이 0.4%로 낮은 수준(한국 1.3%, 미국 1%)
  - 태국과 같이 각지로부터 많은 장기체재객들을 유치, 보다 많은 관광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

## □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

- 방일회수를 거듭함에 따라 관광객들의 기대는 쇼핑 등에서 꽃구경·스키·온천·문화 등으로 이동하는 만큼, 역사적 건조물 가이드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이 과제

## □ 특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

- 2015년 상품수출은 75.6조 엔으로 2009년 이후 최대, 수송용기기·대미 기여도가 높은 상태
- 일본 내 지역별 제조업수출은 홋카이도와 호쿠리쿠 등에서 증가율이 높으나, 일본 전체에 대한 기여도면에서는 쉼어가 높은 도카이·고신 지방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

## □ 지역으로부터의 수출이 강한 독일의 현황

- 독일 각주의 제조업은 일본과 비교하여 수출비율이 높고, 보다 해외시장을 지향. 모든 주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수출이 감소한 지역도 없음

## □ 일본의 수출사업소 확대

- 일본에서도 수출을 하는 사업소의 비율은 근년 거의 모든 주요 업종 및 지방에서 상승하고 있어, 중견·중소기업을 포함, 수출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

## □ 수출잠재력이 높은 非수출기업

- 뿐만 아니라 중견·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아직 수출잠재력이 높은 비수출기업이 다수 존재, 지역수출의 저변을 더욱 확대할 여지는 큼. 신 수출대국 컨소시엄\*의 활용 등이 과제

\* 「신 수출대국 컨소시엄」은 2016년 2월 26일, 경제산업성 「신 수출대국 컨소시엄」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서 정부기관, 지역의 금융기관과 상공회의소 등 일본 국내 각 지역의 기업지원기관들이 결집하여 해외전개를 꾀하는 중견·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실시

□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

- 상사와 온라인플랫폼의 활용, 디자이너와의 연계 등은 중소·영세기업의 해외판로개척에 효과가 있는데, 자사에 적합한 파트너를 찾지 못하는 사업자도 많음

□ 자치체에 의한 판로개척지원

- 수출확대를 계속하고 있는 자치체나 독일에서는 판로확보에 더하여 연구개발협력 등의 국제화를 위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음

□ 신흥국 뉴프런티어에 도전

-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직면한 아시아 신흥국들로부터 인도·아프리카 등으로 성장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큼. 도시화 등의 추진 시 건설·유지보수와 함께 인프라수요가 확대
- 질 높은 인프라 사업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가일층의 기여, 일본 기업에 의한 가일층의 해외전개 지원이 과제

### 3. 정책편

□ TPP협정에 의한 새로운 룰 형성

- 2016년 2월, TPP서명. 세계 GDP의 40%, 일본 수출의 30%를 점하는 시장에서 관세철폐뿐만 아니라,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룰을 구축
-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, 원산지규칙에 누적을 도입, 투자·서비스의 자유화, 모방품대책의 강화,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분야의 룰 정비, 폭넓은 분야에서 중견·중소기업에게 이점이 있는 내용을 포함

□ 경제연대협정 추진과 WTO 활용

- 일본EU·EPA, RCEP, 한중일FTA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경제연대협정 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

- WTO에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새로운 과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. 또한 ITA(정보 기술협정)확대교섭타결의 성공에 힘입어 「환경물품교섭」과 새로운 「서비스무역교섭」 등의 조기타결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

#### □ 투자 관련 협정의 체결촉진 등 투자환경 정비

- 2015년 5월 11일 「투자 관련 협정의 체결촉진 등 투자환경정비를 위한 액션플랜」을 책정
- 액션플랜에서는 ①2020년까지 100개국·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자 관련 협정의 서명·발효를 목표로 하고, ②투자 관련 협정에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 등이 포함

#### □ 시장획득을 위한 전략

##### ○ 신흥국 전략

- 톱세일즈, 정부부처간 연계체제 강화, 투자협정, 조세조약, 사회보장협정 체결·개정, 공적 파이낸스제도 확충, 기술협력 심화 등

##### ○ 인프라시스템 수출 전략

- 리스크머니 공급확대, 전략적 인재육성, 질 높은 인프라의 국제적 표준화, 인프라의 해외전개를 담당하는 일본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